

부산지방의 세시풍속에 나타난 사유관⁺

김 승 찬*

차 례

I. 서 론

III. 결 론

II. 본 론

II-1. 절복에 나타난 사유관

II-2. 금기에 나타난 사유관

I. 서 론

세시풍속이란 일 년을 주기로 한 주기전승물(週期傳承物)로서 일정하게 정해진 날이나 시기에 관습적으로 반복하는 외현(外現)의 풍속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연중행사라고도 한다.

세시풍속을 옛날에는 절령(節令)·월령(月令)·시령(時令)이라고도 불렀으며, 그 가운데 특정한 날은 명절(名節)·절일(節日)이라 지칭한다. 앞의 절령·월령·시령이라는 용어가 일 년의 네 계절(=節侯) 또는 열 두 달에 있어서 각 계절 또는 각 달에 행하여야 하는 정령(政令)에 중점을 둔 명칭이라면, 명절·절일이란 역사적으로나 절후적으로나 또는 생업적으로 기념해야 할 날을 세워 일

+ 이 논문은 1997년도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큰 말이다.

우리 나라의 세시풍속은 우리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업활동이나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대륙에서 부단히 전래되는 세시풍속의 일부를 수용하여 창조·전승한 풍속인 만큼 다층적 복합문화다. 그러나, 단일민족으로 국토가 좁아 문화의 전과과정이 용이한 까닭에,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행해지고 있는 민속임으로 보편적 기층문화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부산지방의 세시풍속에 외형적으로 다른 지방의 세시풍속과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정 정도의 차이성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지방 사람들만의 고유한 사유관이 세시풍속에 드러날 것이라 추정하고, 몇 년간 이 지방의 세시풍속을 조사·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여기에서는 점복과 금기 속에 드러나는 사유관을『경도잡지』·『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와 대비하여 천착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Ⅱ-1. 점복에 나타난 사유관

점복이란 점을 쳐서 길흉을 예견하는 일이다. 세시와 관련되는 점복에는 개인이나 가정의 운수를 예견하기 위해 치는 점복과 그 해의 풍흉을 예견하기 위해 치는 점복이 있다.

점복을 행하는 근원적 목적은 앞으로 전개될 사상(事象)을 단순하게 예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사상이 잘 전개되기를 온연(隱然)히 기대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복을 행할 때 길조(吉兆)를 이끌어내기 위해 때로는 사술(詐術)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에 있어서 서편(암출편)이 이겨야 그 해 풍요가 온다는 속설을 믿고 동편(숫출편)이 이길 수 있는데도 마지막 승부를 결정할 때에 이르러서는 서편에 던지지 저주는 것이다.

『경도잡지』·『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에 기술되어 있는 점복은 다음과 같다.

- 설날 또는 제야에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율점.
[『경도잡지』에는 설날·『동국세시기』에는 제야]
- 설날 새벽에 들리는 첫소리로 일년간의 길흉을 점치는 청참(聽參).
[『동국세시기』]
- 설날에 개인의 일년 신수를 점치는 오행점(五行占). [『동국세시기』]
- 입춘에 보리의 풍흉을 점치는 보리뿌리 점. [『열양세시기』]
- 상원에 달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달점.
[『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
- 상원 밤에 달 그림자의 길이로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달그림자 점.
[『동국세시기』]
- 상원에 재 담긴 주발에 떨어진 곡식을 보고 풍흉을 점치는 우희점(盂灰占). [『동국세시기』]
- 상원 새벽에 닭울음 횟수로 그 해 풍흉을 점치는 계명점(鷄鳴占).
[『동국세시기』]
- 상원에 월별(月別)의 수한(水旱)을 점치는 달불음점(月滋占).
[『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
- 상원에 호별(戶別)의 풍흉을 점치는 집불음점(戶滋占). [『동국세시기』]
- 상원에 행한 변전(滋戰=便戰)으로써 그 해 풍흉을 점치는 석전(石戰)·
팻불싸움(炬戰)·줄다리기(紮河戲 또는 葛戰)·차전(車戰) 등.
[『경도잡지』·『동국세시기』]
- 이월 초엿새에 묘성(昴星)과 달과의 거리를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묘성점(昴星占). [『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
- 이월 20일(영동할미가 올라가는 날)의 날씨로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일기점(日氣占) [『동국세시기』]
- 삼복(三伏)의 비로 대추의 풍흉을 점치는 삼복우점(三伏雨占).
[『열양세시기』]
- 십일월에 못의 얼을 갈라진 것을 보고 이듬해의 풍흉을 점치는 용경점(龍耕占). [『동국세시기』]

위의 세 세시기에 의하면 점복이 15종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부산지방에는 세시와 관련된 점복 행사가 대단히 많다. 이를 월별로 보면,

1월 ; 설 날씨 점·세수 모유무일(毛有無日) 점·첫조금 날씨 점·입춘 날씨점·보름날씨 점·보름달 점·달 그림자 점·달집 점·내방자 점·금수 울음 점(聽譏)·월자(月滋)점·소먹이 점·밥짓기 점·줄다리 기점·팔랑개비 점·열매 깨물기 점·연점·율점·벚단 재 점·보리 뿌리 점·해초 점.

2월 ; 초하루 날씨 점·초하루 조수(潮水) 점·묘성(昴星) 점·첫조금 날씨

- 점·영동뿔시 점·12일 바람 점·뇌성 점·내방자 점·보리뿌리 점.
 3월 ; 삼진날 날씨 점·청명 날씨 점·한식 날씨 점·한식 풍랑 점·한식 뇌성 점·3월 첫 뇌성 점·당산나뭇잎 점·까치집 점·까마귀 새끼 점·새 울음 점·나비 점·백 점·해초 점·담치(紅蛤) 점.
 4월 ; 초파일 날씨 점·망종(芒種) 들기 점·호박순 점.
 5월 ; 단오 날씨 점·망종 날씨 점·태종우(太宗雨) 점·까마귀 울음 점.
 6월 ; 유두 날씨 점·유두 뇌성 점·유두 화도 점·삼복 뇌성 점·삼복비 점·20일 날씨 점·달무리 점·뚝부기 점·도토리 점.
 7월 ; 칠석 날씨 점·백중 샛바람 점·백중 달 그림자 점·처서 날씨 점·백로 들기점·옥수수 알 점·무 뿌리 점.
 8월 ; 추석 앞날 날씨 점·추석 날씨 점·추석 달 점·추석 조수 점·백로 들기 점·백로 날씨 점.
 9월 ; 중양절 날씨 점·갈가마귀 점.
 10월 ; 초하루 날씨 점·보름달 점·입동 들기 점·입동 날씨 점·입동 뒤 첫 갑자일 날씨 점·뇌성 점·부엉이 울음 점·보리뿌리 점.
 11월 ; 동지 날씨 점·겨울밤 눈 점·고드름 점·얼음 점·팔죽 점·날짐승 점·초 점·보리뿌리 점.
 12월 ; 그믐 날씨 점·그믐밤 점·해무리 점·뇌성 점·춧불 점·실 태우기 점·울점·닭꼬리 점·부엉이 울음 점·보리뿌리 점·벼 종자 무게 점·도깨비불 점.

위에 열거한 부산 지방의 세시 점복을 보면, 명절을 비롯한 특정일은 설날과 이월 영동할미날을 제외하고는 맑고 바람도 세지 아니하면 그 해 시절이 좋을 것이라 점친다. 곧, 입춘·상원·삼진날·청명·한식·초파일·단오·유두·칠석·백중·추석·중양절·동지·제일(除日)에는 날씨가 좋아야 그 해나 다음해 풍년이 온다고 점친다.

설날 날씨가 질면 여름에 가뭄이 없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설 날씨 점, 세수(歲首)에 유모일(有毛日)이 들면 짐승의 털이 무성한 것처럼 그 해 여름에 곡물이 무성히 자라 풍년이 든다는 털날 점, 상원과 이월 초하룻날에 키 큰 사람이 집을 방문하면 그 해 보리 농사와 삼 농사가 잘 된다는 내방객 점, 상원에 열두 콩알의 불음에 따라 월별(月別)의 수한(水旱)을 예측하는 콩 불음 점, 상원에 짓는 밥이 물기가 적어 된밥이 되면 그 해 비가 적게 와 흉년이 든다는 밥짓기 점, 상원에 팔랑개비가 잘 돌면 그 해 신수와 시절이 좋을 것이라는 팔랑개비 점, 상원에 열매를 깨물어보아 알이 딱 차 있으면 그 해 신

수와 시절이 좋을 것이라는 열매 깨물기 점, 상원에 연을 날려보아 연이 멀리 잘 날면 그 해 신수와 시절이 좋을 것이라는 연 점, 삼월에 해조류가 번성하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해조류 점, 칠월에 옥수수의 알이 촘촘히 박혀 있으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옥수수 점, 동지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동지 눈 점, 동짓달에 고드름이 길고 많게 달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고드름 점, 제야에 수탉의 꼬리가 길게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닭 꼬리 점, 동짓달 연못에 언 얼음이 많이 갈라져 있거나 동지 팔죽의 표면이 많이 갈라져 있으면 이듬해 가뭄이 심할 것이라 점치는 얼음 점과 동지 팔죽점 등은 ‘유사(類似)는 유사를 낳는다.’ 또는 ‘결과론 그것의 원인을 닮는다.’라는 유사법칙의 사유관(思惟觀)에 입각하여 풍흉(豐凶)을 예측한 점복의 예다.

바람점은 바람이 부는 시간·풍속(風速)·바람 종류로 나누어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데, 상원·2월 12일·제일의 오전에 바람이 불면 그 해 오려 농사가 잘되고, 오후에 바람이 일면 늦벼 농사가 잘된다고 예측한다. 그리고, 설날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해 태풍으로 흉년이 든다고 점치며, 단오·6월 20일·백중날에 셋바람이 불면 그 해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뇌성(雷聲=천둥)은 오행(五行) 가운데 물(水)이 그 본성을 잃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의 본성은 습윤(濕潤)하여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물이 그 본성을 잃으면 폭우(暴雨)·고요(鼓妖=괴상한 큰 소리)·시화(豕禍=돼지가 죽는 재앙)·상설(霜雪)·우박(雨雹)·뇌전(雷電) 등의 재앙을 일으킨다.¹⁾ 그래서 농어민들은 우레로 그 해의 시절을 점치는데, 6월 유두날 우레를 제외하고는 나라 안이 어지럽다거나 시절이 흉흉하다고 점친다.

불은 번창을 상징한다. 그래서 상원에 달집을 태울 때 불꽃이 기울어지는 쪽에 있는 마을에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점친다. 이는 불이 번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사한 집이나 가정을 처음 꾸리는 집이나 새 건물에 입주한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이 번창하도록 성냥(=불)을 선물로 가져가는 풍속과 같은 맥락이다.

상원에 벼단을 태워 그 재가 꼬불꼬불하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풀이하는

1) 『漢書』五行志.

것은 꼬불꼬불함이 음모(陰毛) 및 비의 상징으로 여겨 번창과 풍요를 보장하는 것으로 풀이하였기 때문이다.

연기는 구름을 상징한다. 그래서 상원에 달집을 태울 때 연기가 흘러가는 방향에 있는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점치는 거나, 달집을 태울 때 연기로 달을 그슬리면 그 해 풍년이 든다 하여 달집을 만들 때 청솔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나, 기우제 때 연기를 피우는 것은 연기가 구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돌 싸움(石戰)·줄다리기·차전(車戰)놀이·햇불 싸움·나무쇠 싸움(木牛戲) 등 집단적 편싸움은 이기는 쪽의 마을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는 점복인데,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모의적(模擬的)인 예축의례(豫祝儀禮)와 같은 의미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부산 지방에서는 정월 보름에 행한 줄다리기를 보면, 동·서 양편 중 서편이 승리해야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여 서로 승부를 겨루다가 끝에 가서는 동편이 넉지시 서편에게 저준다. 이는 서편[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음양관에 기인(基因)한 것이다. 추석의 날씨 점과 9월의 갈가마귀점도 음양관에 입각한 점복으로써 추석에 달이 있어야 가축들이 잉태하고²⁾ 농작물의 수확이 좋다는 것은 풍요의 상징인 ‘달-여성-풍요’와 관련된 점복 해석법이며, 배가 흰 암 갈가마귀가 많이 날아야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점복도 같은 맥락의 해석법이다.

달 그림자 점도 음양관에 입각한 점복이라 할 수 있다.『회남자』의 논급에 따르면 짧은 그림자는 양(陽), 긴 그림자는 음(陰)이니, 곧 ‘음(陰)-비(雨)-풍요’와 관련지어 본 것으로, 그림자가 길면 풍우가 순조로와 풍년이 들고, 그림자가 짧으면 흉년이 든다고 점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달 그림자의 유무·명암으로 신수점을 치는데, 그림자가 있거나 또렷이 보이면 좋고, 그림자가 없거나 희미하게 보이면 나쁘다고 점치니, 이는 곧 ‘유(有)-명(明)-생(生)-길(吉)’과 ‘무(無)-암(暗)-사(死)-흉(凶)’의 이원론적(二元論的) 음양관에서 나온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동식물이 지닌 선천적(先天的)·생리적인 기후 예감능력의 발현으로써 생태적 현상을 통해 풍흉을 점치는 것으로는 3월의 까치집 점·4월의 호박 넝쿨

2) 『松南雜識』卷1 歲時類.

점·7월의 무 뿌리 점·10월의 보리뿌리 점이 있다. 이들 점복은 까치가 그 해 여름에 수해와 태풍이 많을 것을 미리 예감하여 집을 나무의 낮은 가지에 짓는 것이나, 호박 덩굴이 그 해 바람 많을 것을 미리 알고 땅 위로 뻗어나가는 거나, 무 뿌리와 싹 트는 보리가 닳쳐올 추운 날씨를 예감하고 얼어죽지 않기 위해 뿌리를 길게 깊이 내리는 것을 보아 그 해 겨울의 날씨나 이듬해의 풍흉을 예측하는 점복의 예다.

II-2. 금기에 나타난 사유관

금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관습에 의하여 ‘금지당하고 꺼린다.’의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우리가 세시에 쓰는 금기라는 말은 세시적 의미가 부여된 날에 인물의 출입이나 물건의 출납 및 행동 등을 꺼리고 피하고 금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꺼리고, 피해야 하고, 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을 어기었을 경우에는 초자연적 힘에 의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속신하여 금기 사항을 지킴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내지는 사회를 정화하고, 불길하고도 위험한 사태를 미리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경도잡지』·『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에 기술되어 있는 세시와 관련된 금기의 사례를 보자.

- 정월 상묘일(上卯日)에 사람(他人)이나 나무 제물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여자가 집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동국세시기』]

- 정월 상사일(上巳日)에 이발을 하지 않는데, 이는 집안에 뱀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서이다.

[『경도잡지』·『동국세시기』]

- 정월 상자일(上子日) 상진일(上辰日) 상오일(上午日) 상해일(上亥日)에 경주지방에서는 모든 일을 꺼리고 삼가여 감히 거동하지 않으며 신일(愼日)로 여긴다.

[『동국세시기』]

- 정월 16일에 시골에서는 대체로 거동을 삼가고 목물(木物)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동국세시기』]

- 정월 8일을 기일(忌日)이라 하고, 남자들이 문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동국세시기』]
- 매달 인가에서 꺼리는 일이나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상현일 하현일을 지나서 행하고 만나다.
[『동국세시기』]
- 매달 5일 14일 23일을 삼폐일이라 하고, 이 날에는 모든 일을 꺼리고 거동을 삼가고 외출을 하지 않는다.
[『동국세시기』]
- 이월 초하루부터 15일 또는 20일까지 사람을 꺼려 교접하지 않는다.
[『동국세시기』]
- 이월에 제주지방에서는 배 타기를 금한다.
[『동국세시기』]
- 매년 봄 가을에 제주에서는 광양당과 차귀당에서 신에게 제사지낼 때 차귀신(遮歸神= 회색의 뱀)이 나타나면 금기하고 죽이지 않는다.
[『동국세시기』]
- 오월 신일(辛日)은 모든 것을 꺼리므로 이 날 장 담그기를 기피한다.
[『동국세시기』]

세 세시기에 기술된 금기 풍속은 11개로 금기를 어겼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월 상사일(上巳日)의 금기를 제외하고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에 비하여, 부산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시와 관련된 금기 사항에는 반드시 금기 위반 시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부산지방에서 행하는 금기 사항을 월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월 ; 설날에 부엌 재 안 치기·정초에 곡식 재물 불씨 안 내보내기·보름에 탄 밥술 술가락으로 안 굽기·보름에 마당 안 쓸기·보름에 방아 안 쪼기·보름에 물동이 안 이기·보름에 빨래 안 하기·보름에 생선 안 자르기·설에 부녀자의 내방 꺼리기·보름에 맨발로 안 다니기·보름에 개밥 안 주기·보름에 누룽지 안먹기·보름날 나물에 밥 안 비벼 먹기·보름날 물에 밥 안 말아먹기·보름에 뜨거운 것 안 먹기·보름에 매운 것 안 먹기·보름에 찬물 안 먹기·보름에 찜거름 안 먹기·보름에 김치 안 먹기·첫취날에 집 손질 안 하기·첫소날에 도마질 안하기·첫소날에 쇠붙이류 안 다루기·첫소날에 바느질 안 하기·첫범날 부녀자의 바깥 출입 안 하기·첫뱀날 머리 안 빋고 안 자르기·첫잔나비날 칼질 안 하기·첫개날 빨래 안 하기와 풀 안 췌기·사람날 칼 안 만지기와 외박 안 하기·곡식날 이 안 죽이기.
- 2월 ; 초하룻날 김치 안 먹기·이월에 혼사 안 하기·초하룻날과 바람 올

- 리는 날 부정한 데 안 가기·초하룻날 물색 옷 안 입기와 오색 물감 안 다루기·이월에 땅 안 파기·이월에 장 안 담그기·이월에 이사(移徙) 발치(拔齒) 안 하기.
- 3월 ; 초하룻날 부녀자가 남의 집 방문 안 하기·곡우날 부부 동침 안 하기·누에 오를 때 초상집 안 가기.
- 5월 ; 오월에 대나무 안 베기·오월에 장 안 담그기.
- 6월 ; 유월에 아이들 미역잡기 금지·유월에 문병 안 하기·유월에 이사 안 하기.
- 7월 ; 칠석 자정 전 잠 안 자기·백중날 논밭 안 가기·백중날 칼질 안 하기·백중날 저녁에 일 안 하기·백중날 집에 새 물건 안 들이기.
- 8월 ; 팔월에 문 안 바르기.
- 10월 ; 초닷새 폐일(敗日)과 화일(火日)에 지붕 안 갈기.
- 11월 ; 애기동짓날 팔죽 안 끓이기·동지 밤에 부부 동침 안 하기.
- 12월 ; 그믐날 맨발로 안 다니기·그믐날밤 자는 아이 잠 안 깨우기.

이들 금기 행사 가운데 농사와 관련된 금기, 복 또는 재수와 관련된 금기, 질병과 관련된 금기 사항을 보면,

1) 농사와 관련된 금기 행위

- 정초에 곡식·채물·불씨 안 내보내기 ; 벼에 쭈정이가 많이 생긴.
[집안 재물의 나감과 벼의 알맹이 안 참의 유사성]
- 보름에 탄 밥술 술가락으로 안 굄기 ; 농사철에 쟁기 날이 부러짐.
[술가락과 쟁기의 유사성]
- 보름에 방아 안 찰기 ; 벼논에 물구멍이 생겨 농사가 안 됨.
[방아 찰기와 물구멍 내기의 유사성]
- 보름에 빨래 안 하기 ; 벼에 쭈정이가 많이 생기고 벼포기가 마름.
[빨래 말리기와 벼포기 마르기의 유사성]
- 보름에 생선 안 자르기 ; 논두렁이 갈라짐.
[자름과 갈라짐의 유사성]
- 보름날 나물에 밥 안 비벼 먹기 ; 밭에 잡초가 많이 남.
[나물 밥과 잡초의 유사성]
- 보름에 참기름 안 먹기 ; 벼씨를 논에 부을 때 이끼가 생기고, 모심기 할 때 미끄러움.
[참기름의 미끄러움과 논이 미끄러움의 유사성]
- 보름에 머리 안 빗기 ; 콩밭에 새살이 많이 남.
[머리카락과 새살의 유사성]
- 첫소날에 쇠붙이류 연장 안 다루기 ; 농사철에 쟁기 날이 부러짐.

[쇠붙이와 쟁기날의 유사성]

· 첫잔나비날 칼질 안 하기 ; 칼에 다침.

[잔나비의 속성과 상관성]

· 곡식날 이 안 죽이기 ; 벼에 죽정이가 많이 생긴.

[이와 쌀의 유사성]

· 곡우날 부부 동침 안 하기 ; 벼농사가 잘 안 됨.

[穀靈이 활동할 신성시간에 인간 근신의 필요성]

· 백중날 논밭 안 가기 ; 곡식에 죽정이가 많이 생긴.

[농신이 결실 작업을 하는 신성시간에 인간 근접의 경계성]

농사와 관련된 금기 사항은 유사성에 따른 발상법에 기초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축일(丑日)은 우리말로 ‘쇠날’이다. 정월 첫쇠날의 민속을 한번 보자.

- ① 이 날 소가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일을 잘 하게 콩을 삶아 먹인다.
- ② 이 날 칼질을 하면, 농사철에 소가 병들거나 칼질한 사람이 그 해 운수가 좋지 않다.
- ③ 이 날 쇠붙이 연장을 다루면, 농사철에 쟁기 날이 부러진다.
- ④ 이 날 바느질을 하면, 그 해 소가 발을 다치거나 발에 탈이 난다.

‘쇠날(丑日)’의 ‘쇠’와 ‘쇠(鐵)’는 발음으로 볼 때 같다. 따라서 ‘쇠날’에 소를 부리지 않고 놀림은 곧 ‘쇠날’에 쇠(칼·바늘·쟁기 따위의 쇠붙이)를 다루지 않음과 통한다. 그런데, 쇠붙이를 다루지 않아야 할 ‘쇠날’에 쇠붙이를 다룸으로써 뒷날 ‘탈’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유관에서 이런 금기 행위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복 또는 운수와 관련된 금기 행위

· 설에 부녀자의 내방 꺼리기 ; 운수가 나쁘거나 동티가 생긴.

[여자와 不淨의 상관성]

· 설에 부엌 재 안 치기 ; 재수가 없고 복이 나감.

[재와 재물과의 발음 유사성 또는 치위 없앰과 나감의 유사성]

· 정초에 곡식·재물·불씨 안 내보내기 ; 복이 나감.

- [곡식·재물·불씨와 복과의 상관성 또는 내보냄과 나감의 유사성]
· 첫쥐날에 집 손질 안 하기 ; 쥐가 집에 구멍을 뚫음.
[탁음과 뚫음의 상반성]
- 첫범날 부녀자의 외출 안 하기 ; 호환(虎患)당함.
[신성과 부정의 상반성]
- 보름에 마당 안 쓸기 ; 복이 나감.
[쓸어냄과 나감의 유사성]
- 보름에 방아 안 찡기 ; 복이 나감.
[뛰어나감과 나감의 유사성]
- 보름에 물동이 안 이기 ; 소나기나 벼락을 맞음.
[물과 소나기·벼락의 상관성]
- 보름에 빨래 안 하기 ; 복이 달아남.
[방망이 소리에 놀라 복이 달아남은 복의 정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유한 때문임]
- 보름날 물에 밥 안 말아먹기 ; 여름에 소나기나 찬물벼락을 맞음.
[물과 소나기·벼락의 상관성]
- 보름에 찬물 안 먹기 ; 여름에 벼락을 맞음.
[물과 벼락의 상관성]
- 보름에 머리 안 빗고 안 자르기 ; 재수가 없거나 집안에 상(喪)을 당함.
[신체의 일 부분 훼손과 액과의 상관성]
- 이월 초하루와 바람 올리는 날 부정한 데 안 가기 ; 재수가 없거나 우환이 생김.
[풍신인 영동할미가 내리는 神罰]
- 이월에 혼사 안 하기 ; 부부 사이에 액운이 옴.
[영동할미가 내리는 신벌]
- 이월에 땅 안 파기 ; 액운이 옴.
[영동할미가 내리는 신벌]
- 이월에 장 안 담그기 ; 우환이 생김.
[영동할미가 내리는 신벌]
- 삼월 초하루에 부녀자가 남의 집 안 가기 ; 재수 없음.
[여자와 부정의 상관성]
- 유월에 문병 안 하기 ; 액운이 붙음.
[액달에는 病魔가 橫行함]
- 유월에 이사 안 하기 ; 부정을 타 액운이 옴.
[액달에는 액운이 따름]
- 백중날 저녁에 일 안 하기 ; 일 년 내 고생함.
[망혼젯날의 근신]
- 백중날 집에 새 물건 안 들이기 ; 액운이 따름.
[망혼젯날의 근신]
- 팔월에 문 안 바르기 ; 도둑 맞음.

- [보존과 상실의 상반성, 막음과 뚫음의 상반성]
- 초닷새 패일(敗日)과 화일(火日)에 지붕 안 갈기 ; 화재 발생.
- [패일은 금기의 날, 화일과 화재의 상관성]
- 애기동짓날 팔죽 안 끓이기 ; 아이에게 액이 움,
- [언어질병과 상관성]
- 동지 밤에 부부 동침 안 하기 ; 부정을 타 태어나는 아이에게 좋지 않
거나,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거나, 자식이 귀함.
- [신성동물인 호랑이가 교미하는 신성시간에 인간 근신의 필요성]

복 또는 운수와 관련된 금기 사항을 보면, 유사성과 상관성에 따른 발상에 기초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정초에 곡식·재물·불씨를 집밖으로 내보내면 집안의 복이 나간다.”라는 속신에는 곡식과 재물 및 불씨를 복과 상관 짓는 생활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곡식은 재물에 속하고, 불씨는 집안에 있어서 재물 흥성(興盛)의 씨다. 따라서 곡식·재물·불씨의 간직은 오복(五福)의 하나인 ‘부(富)’의 간직과 상관성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소중히 간직하여야 할 이것들을 집밖으로 내보냄은 곧 내보냄에 따라 복의 운도 따라나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속신한 것이다.

‘이월에 땅 안 파기’는 이월이 되면 식물이 땅 속에서 비로소 싹을 틔운다. 그래서 이월에는 춘사(春社=임춘 후 다섯 번째 戊日)에 토지신에게 곡식의 생육을 기원하는 제사, 입추 후 다섯 번째 무일에는 토지신에게 수확의 감사로 秋社를 지냄.)를 지내니, 함부로 땅을 파면 곡물의 싹을 죽일 뿐만 아니라, 토지신 곧 대지모(大地母, Earth - Mother)에게 불경(不敬)의 행위가 되므로 땅 파는 행위를 금한 것이라 여겨진다.

또, 이월은 풍신이요 내방신이며 여신인 영동할미가 하늘에서 머느리나 딸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 겨울 동안 쌓였던 더러운 기운을 몰아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달이다. 따라서 이 달에 인간들은 영동할미를 정성껏 모시면서 한 해 동안 농사 지을 준비를 차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색 물감이나 만지고 혼사를 치르면, 할미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이에 신벌(神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달에 할미를 정성껏 모시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때 보리밭과 밀밭에 미더지기(잡것)를 버려 보리와 밀 농사를 망치고, 오색 물감을 만지면 눈병을 나게 하며, 혼사를 치르면 결혼한 부부의 금슬에 액이

끼게 한다. 영동할미와 상대되는 시월 20일에 오는 풍신이요 내방신이며 남신인 손돌(孫堧)도 그를 경외(敬畏)하지 않으면 배 사고가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애기동짓날 팔죽을 쑤면 아기에겐 액이 온다.”는 속신(俗信)은 언어질병(言語疾病)과 상관성을 짓고 있다. ‘애기동지’란 ‘액(厄)의 동지’(액을 퇴치하는 동지)와 발음이 유사하므로 언어질병에 의하여 “애기동짓날(액의 동짓날) 팔죽을 쑤면 ‘애기(아기)’에게 ‘액’이 온다.”는 부회적(附會的) 속신설(俗信說)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3) 질병과 관련된 금기 행위

- 보름에 빨래 안 하기 ; 손이 물러짐. [물과 물러짐의 상관성]
- 보름에 개밥 안 주기 ; 개가 여위며 비루가 오르고 파리가 피임. [음양조화 파괴와의 상관성]
- 보름에 누룽지 안 먹기 ; 버짐이 생김. [누룽지와 버짐의 유사성]
- 보름에 뜨거운 것 안 먹기 ; 땀띠가 나거나, 더위를 먹음. [뜨거움과 땀띠 및 더위의 상관성]
- 보름에 매운 것 안 먹기 ; 땀띠가 나거나, 몸뚱이가 생김. [매움의 자극성과 땀띠 및 몸뚱이의 상관성]
- 보름에 찬돌 안 먹기 ; 몸뚱이가 생김. [차거움과 몸뚱이의 상관성]
- 보름과 이월 초하루에 김치 안 먹기 ; 땀띠가 나거나, 몸뚱이에 쏘임. [매움의 자극성과 땀띠 및 몸뚱이의 상관성]
- 보름에 바느질 안 하기 ; 생안손 얹이를 하거나, 손톱 밑 도는 쇠발에 가시가 박힘. [바늘과 가시의 유사성]
- 이월 초하룻날 물색 옷 안 입기와 오색 물감 안 다루기 ; 눈병이 생김. [풍신인 영동할미의 질투]
- 곡우날 부부 동침 안 하기 ; 자식이 병들음. [곡령의 신성성 강조와 기풍과의 상관성]
- 칠석 자정 전 잠 안 자기 ; 귀신 들림. [七星神 또는 乞巧 시간의 신성성]
- 제일에 맨발로 안 다니기 ; 다음해 발바닥이 아프고 허물이 일어나거나 종기가 난다. [凍傷과의 상관성]

· 재석에 자는 아이 잠 안 깨우기 ; 놀라 죽음.

[靈과 肉의 분리의 사유관]

질병과 관련된 금기 사항은 상관성에 따른 발상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 많다. 그런데, 재석(除夕)에는 수세(守歲)의 풍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반된 속설이 있다.

- ① 기장군 고촌리·기룡리에서는 그믐밤에 자는 아이의 얼굴에 검정 칠을 하면 일년 내내 아이가 건강하다고 한다.
- ② 금정구 산성마을에서는 그믐날 자는 사람을 깨우면 자던 사람이 놀라서 죽는다고 하고, 강서구 녹산동에서는 자는 아이의 얼굴에 검정 칠을 하면 아이의 혼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죽게 된다고 하며, 기장군 청광리·용수리·덕선리에서는 아기가 잘 놀라게 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상반된 속설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②의 녹산동의 속설이 우리의 민담에 뿌리를 박고 형성된 속설이 아닐까 사료된다. 우리 민담에 사람이 잠들면 그 사람의 혼(魂)이 흰 생쥐로 되어 콧구멍을 통해 몸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몸밖으로 나온 혼이 다시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갈 때 검정 칠이 된 얼굴을 보면 자기의 얼굴이 아니라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람의 육체란 영혼의 집’이라고 하는 사유관에서 나온 금기 속설이라 여겨진다.

그 다음, 보름에 개에게 밥 안 주기와 까마귀에게 찰밥 주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름에 개에게 밥 안 주기와 까마귀에게 찰밥 주기는 음양의 조화를 배려한 사유에서 나온 민속이다. 음양이 조화로워야 우순풍조(雨順風調)에 따른 오곡의 풍등(豐登)이 이루어진다. “삼복(三伏)에 개장국을 먹어 양기를 돕는다.”라 한 것과 속설에 월식(月蝕) 현상을 “불개가 달을 잡아먹는다.”라 한 것을 보아 개는 양(陽)에 속하는 동물인 동시에 달을 잡아먹는 동물이다. 이 동물에게 밥을 주면 양기가 더욱 보강되어 풍요의 상징인 달의 정기(月精)를 흡

인(吸引)하게 된다. 그러면 달의 정기가 쇠약해져 그 해 오곡의 풍등을 기약할 수 없다. 보름달의 정기를 유지 내지 보강시키려면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정월 보름은 절후상 입춘 전후에 온다. 동지로부터 일양(一陽)이 생성되기 시작하고³⁾ 하지로부터 일음(一陰)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입춘 전후는 생성의 사양(四陽)·노쇠의 팔음(八陰)의 절후이다. 육양(六陽)·육음(六陰)의 조화로운 음양을 만들려면 양을 더욱 보강해야 된다. 여기에 등장된 민속이 까마귀에게 찰밥 주기다. 찰밥은 내실(內實) 곧 채움의 밥이다. 일정(日精)의 상징인 까마귀에게 찰밥을 주는 민속은 일정을 보강하는 민속이다. 까마귀가 일정의 상징임은 다음의 사례로 알 수 있다.

- 백제의 오회사(烏舍寺)에 크고 붉은 말이 주야 6시간 절을 에워싸고 돌았다.⁴⁾

[烏와 赤馬의 상관]

- 단오일(端午日)을 단양일(端陽日)이라 한다.

[午와 陽의 상관]

- 시월 무오일(戊午日)을 무마일(戊馬日)이라 한다.⁵⁾

[午와 馬의 상관]

- 해를 직오(織烏)·삼족오(三足烏)·준오(駿烏)·금오(金烏)라 한다.

[태양과 烏의 상관]

- 신라 소지왕을 도운 까마귀(烏)·쥐(鼠)·돼지(猪)·서출지(書出池)에서 나온 노옹(용의 변신)을 생각하여 상오일(上午日)·상자일(上子日)·상해일(上亥日)·상진일(上辰日)을 신일(愼日)로 정했다.⁶⁾

[烏와 午의 상관]

위의 상관성을 종합하면, '까마귀(烏)=말(午)=해(陽 또는 太陽)'의 양성(陽性)적 사유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까마귀에게 찰밥을 주는 것은 곧 일정에 먹이를 주어 그의 힘인 양을 보강시키는 민속의례라 할 수 있다.

3) 『思親歌』와 『觀燈歌』

4) 『三國遺事』卷第1 太宗春秋公條.

5) 『松南雜識』卷1 歲時類.

6) 『東國歲時記』正月 月內條.

Ⅲ. 결 론

이상으로 논의한 바를 종합해 결론을 지으면,

첫째, 세 세시기(경도잡지·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에는 점복의 사례가 15개, 금기의 사례가 11개 기술되어 있는데, 부산지방에는 점복의 사례가 103개, 금기의 사례가 55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세 세시기는 점복이나 금기를 거의 대등하게 기술하였는데, 부산지방의 기층민은 점복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반 세시풍속의 핵질(核質)이 기축에 있다면, 부산지방의 기층민은 점복을 통한 기축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점복과 금기를 통해 부산지방 기층민의 사유관을 천착해보면, 점복에 있어서는 날씨로 수한과 풍흉을 점치는 경우가 약 3분의 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식물의 제반 현상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경우다. 개인의 그 해 운수를 알기 위해 행하는 점복으로는 달 그림자 점·팔랑개비 점·열매 깨물기 점·연 점·웃점·나비 점·뽕 점·춧불 점·실 태우기 점 등이 있는데, 달 그림자 점은 수한을 점치는 것을 변용한 것이다. 이들 점복은 유사법칙의 사유관과 이원론적 음양관에 입각하여 수한과 풍흉 및 개인의 운수를 예측한 것이다. 금기에 있어서는 개인의 복록 또는 운수와 관련된 금기 사례가 전체 금기 사례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농사와 관련된 금기와 질병과 관련된 금기가 반씩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금기행위에는 유사성·상관성·신설성 등의 사유관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점복과 금기에 일관되게 감지(感知)되는 것은 기축(祈祝)이라는 핵질(核質)이다. 세시 절일에 점복과 금기를 행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재액의 소멸과 건강 및 풍요를 바라는 기축에서 방사(放射)된 민속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민속행위야말로 우리 기층민의 기축정신을 형성하는 기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easonal Folk Customs of Pusan and Its Vicinity and People's Thought

Kim Sung-Chan

An extensive field research into the seasonal customs of Pusan area,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aboos and fortune telling, has led 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hereas the three well known books on the seasonal customs of Korea, Kyungdo-job-ji, Yolyang-sesi-gi, and Tongguk-sesi-gi recorded 15 instances of fortune telling and 11 instances of taboo, in case of Pusan we find 103 instances of fortune telling and 55 instances of taboo. This means that, unlike the general tendency of Korean people revealed in the above mentioned three books, the common people of Pusan resort more to the means of fortune telling than avoiding taboos to ensure new year's fortune and happiness.

Second, through this research, we could attain a few clues to the thinking patterns of the common people of Pusan. The most frequent means of fortune telling is weather.

People predict flood or draught of the summer and harvest of the autumn through weather. About one third of the fortune telling belongs to this type. Next comes the type which relies on a certain appearances or phenomenon of plants or animals to foretell the year's harvest. As to the individual person's fortune telling, various means are employed to foretell the new year's luck. These include moon shadow-jom(jom means the act or practice of fortune telling), Yoot-jom, candle-jom and so on.

Moon-shadow-jom is a transformed version of the one used to foretell flood or draught. In case of taboo, about half of all cases are to promote an individual's good luck. The other half are divided equally between those related to farming and diseases. The major operating principles of taboo are similarity, correlation, and most of all, the nature of punishment by gods.

Third, the one consistent nucleus of fortune telling and taboo seems to be the wish for luck and well being to the gods. These seasonal folk customs must have sprung out of the people's common wish for the fortune and well being throughout the whole year. Therefore, fortune telling and taboo could be regarded as the core element that shaped the common people's mind that calls for prayer to gods to ensure the good harvest, the safety, and happiness for oneself as well as his/her beloved ones.